

# 민주 “尹, 日 침략론자 말 인용 강연...식민지배 찬동하나”

### “모든 것 내 주고 청구서만 받아와” 국힘 “무책임한 선동질 그만하라” 여야, 한일 정상회담 연일 난타전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여야가 연일 엇갈린 입장으로 대립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의 내배개치고 외교 문제까지 방탄 방패로 쓰고 있다”고 공격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게이오대 강연에서 일본의 대표적 침략론자의 발언을 인용했다며 강한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위대 군함발’ 운운하며 연일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과 대일외교를 비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의 윤석열 정부 대일외교 비난에서 논리적인 비판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다”며 “오로지 감정에 호소하는 ‘죽창기 일색’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속셈은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내린 정치적 결단을 국민의 반일 감정을 이용해 정쟁화하려는 것”이라며 “지역 토착 비리 범죄 혐의자가 갑자기 애국투사로 보이는 게 아니고, ‘죽창기’를 부른다고 지은 죄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 대표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쓰아 붙였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아무리 정치적 입장이 달라도 대통령이 타국 정상을 상대하고 있을 때는 같은 편에 서야 우리 국민 아니겠냐”라며 “그것이 민주당이 그토록 싫어하는 일본이라면 더욱 그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이어 “반일·친중·종북·혐이 같은 운동권 시절의 낡은 시각을 버리지 못하면 AI(인공지능) 시대에 가장 먼저 사라질 정당은 민주당이 될 것”이라며 “급변하는 국제사회를 낡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냉동인간’의 행태는 이제 그만 멈춰달라”고 덧붙였다.

김기현 대표는 페이스북에 “주목할 만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여전히 구한말 식 죽창가를 외치며 수구꼴통 같은 반일 선동질에 매달리고 있으니 그저 개탄스러울 따름”이라며 “이 대표는 국회 제1당의 대표답게 양국 갈등과 불신이 해소될 수 있도록 초당적 차원에서 힘을 보태길 바란다”고 적었다.

국민의힘은 이번 한일정상회담으로 “한일 관계의 새로운 페이지가 열렸다”며 성과를 강조하기도 했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지난 1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게이오대 연설 중 인용한 오카쿠라 텐신은 ‘조선은 원래 일본 영토라던 한국 멸시론자’라며 ‘대한민국 대통령이 어떻게 식민 지배에 적극적으로 찬동했던 침략론자의 발언을 인용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안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일본의 침략을 정당화한 침략론자의 말을 인용한 이유가 무엇인가. 일본의 식민 지배에 찬동하는 것이냐”며 “윤 대통령의 대일 굴종 외교는 이제 친일외교를 넘어 승일의 교과로 부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에 국익과 국민 자존을 팔아버린 것도 부족해서 조선 총독이라도 자처하려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윤 대통령은 침략론자의 발언을 인용한 이유를 똑똑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 여당 간부가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일본을 방문해 일본 총리에게 ‘사과’와 ‘반성’을 언급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일본 현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일본에 파견된 국민의힘 간부는 누구인지 공개하라”고 물었다.

안 수석대변인은 “정부 외교라인의 정상회담 사전 조율도 아니고 여당 간부가 사과 표명을 구걸했다가 거절당했다는 보도는 입을 다물 수 없게 한다”며 “일본에 모두 퍼주기로 작정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굴종 외교”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내줄 수 있는 것을 모두 내주고도 적반하장자의 청구서만 잔뜩 받고 온 사상 최악의 외교 참사”라며 “정부와 여당이 한통속이 되어 국민 자존감을 무너뜨린 사건”이라고 힐난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망국적 한일정상회담 규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8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강제동원 해법 및 한일정상회담 규탄 3차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日 5월 G7 정상회의 윤 대통령 초청 최종 조율

### 요미우리신문 보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5월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9일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히로시마 정상회의에서는 G7 회원국 이외에 초청국을 포함해 회의를 열 예정”이라며 “정공공(일제 강제동원 노동자의 일본식 표현) 소송 문제에서 해결책을 제시한 한국의 윤 대통령도 초청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은 올해 G7 의장국 자격으로 초청국을 정할 수 있다.

교도통신은 기시다 총리가 16일 도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에게 G7 정상회의에 초청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지난 17일 보도

했다. 기시다 총리는 오는 20일 인도에서 열리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모디 총리에게 G7 정상회의의 참가를 요청할 방침이다.

요미우리는 기시다 총리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질서의 회복을 주제로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 올해 주요 20개국(G20) 의장국인 인도의 모디 총리를 초청해 협력을 확인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초청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중남미를 대표해 루이스 이나시우 플라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을, 올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의장국인 인도네시아의 조코 위도도 대통령도 초청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 국힘 민생특위 위원장 조수진 최고 내정

### 김기현호 2주만에 지지율 급락 비상 남부지방 가뭄 등 민생 행복 서둘러

국민의힘 3·8 전당대회를 통해 출범한 ‘김기현호(號)’가 이번 주부터 민생 쟁거리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다. 전당대회에 따른 컨벤션 효과가 약 2주만에 ‘실종’된 상황에서다.

전대 이후 국민의힘은 ‘낙지없는 연포탕’이라 지적을 받은 친윤 일색 지도부 인선에도, 정부의 주 69시간 근무 시간제 혼선 및 대일 외교 논란 같은 외생 변수까지 더해지며 지지율 하락세에 직면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조사해 17일 발표한 결과(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34%로 직전 조사보다 4%포인트(p) 떨어졌다.

이번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33%로 나타났다.

전당대회 직전인 이달 3일 발표된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39%를 기록하며 민주당을 두 자릿수 차이로 앞섰지만 이제 차이가 없어졌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김 대표는 민생 관련

메시지나 행복을 서두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현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오직 민생”을 외쳤지만, 사실상 민생과 관련한 메시지나 행복은 그간 눈에 띄지 않았다.

김 대표 측 관계자는 19일 언론과의 통화에서 “이제부터는 진짜 ‘오직 민생’의 기조로 갈 것”이라며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행복가 시작되고 앞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김 대표는 이날 전당대회 후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지난 16일 한일 정상회담 성과 평가 및 후속 조치는 의가 주요 안건이었지만, 남부 지방의 극심한 가뭄 등 민생 문제도 공식 의제로 다뤄졌다.

김 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민생특별위원회 구성할 방침이다. 민생특위 위원장에는 조수진 최고위원을 임명해 무게감을 더하기로 했다.

김 대표는 21일에는 취임 후 첫 현장 행복보 서울 중구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아 이달 말 출시 예정인 ‘긴급생계비 소액 대출’ 상품과 관련해 현장 의견을 듣고서 추진 현황을 점검한다.

김 대표는 고금리로 은행들이 역대급 실적을 거뒀지만, 서민은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과 관련해 서민 부담 해소 방안 마련을 적극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일회용품 줄이고 불필요한 종이는 없애고 도심 속 숲을 가꾸고 지구를 위한 작은 실천, MG새마을금고와 함께해 주세요

**지구의내일도 무궁무진! MGMG**

일회용품 줄이는 MG그린캠페인 | 종이 없는 디지털 창구 | 도시 녹지공간 조성

**MG새마을금고**